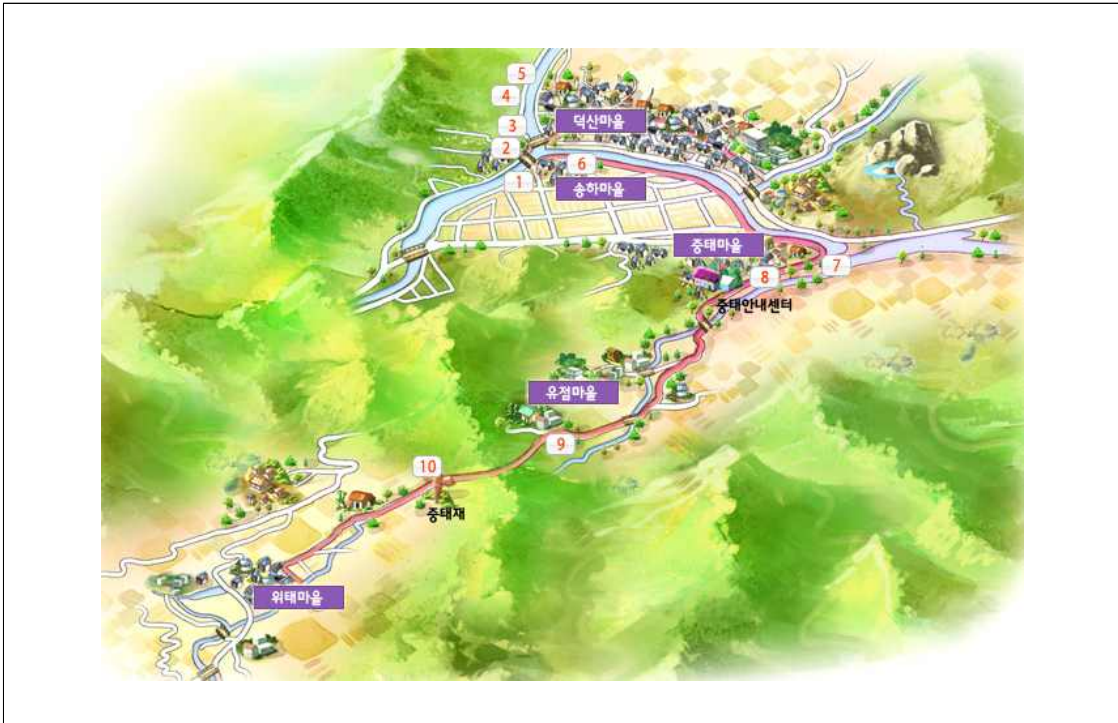


덕산-위태 구간

■ 코스 지도

덕천강과 재를 넘으며 공정여행을 다짐하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덕산-위태 구간 소개	
2	덕천서원	남명 선생 이야기	민속자료
3	세심정	남명 선생 이야기	마을
4	원리	마을 이야기	민속자료
5	덕천강	강 이야기	민속자료
6	금환락지	풍수 이야기와 덕산감	역사
7	송하마을	해평들과 마을	여행
8	중태마을 입구	성냥공장과 도강공사	여행
9	중태마을 안내소	공정여행과 곳감이야기	생태
10	유점가는 길	그릇을 만들던 마을	민속자료/ 생태
11	중태재 이야기	재와 현대사의 아픔	역사

1. 구간 소개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없어졌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낮은 벼슬아치들은 아랫자리에서 히히덕거리며 술과 여자에만 빠져 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은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산 모으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안으로 꿀을대로 꿀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남명 조식 선생의 일대기를 쓴 책을 읽던 중 명종에게 쓴 상소문인 ‘단성소’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든다

당시 갓 스물을 넘긴 어린 왕이라고는 하지만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한나라의 군주에게 이런 직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평생 벼슬자리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학문수양과 제자양성에만 매진한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 이면서 퇴계 이황과는 학문적 라이벌이 었던 인물.

학문적 사상을 새겨 넣은 “경의검”을 허리춤에 차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성성자”의 방울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늘 노력한 남명 조식 선생.

‘덕산과 위태’, ‘위태와 덕산’ 구간을 걸으며 남명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2. 덕천서원

높게 서있는 붉은 홍살문이 눈에 띈다. 이곳이 덕천서원임을 강조하는 듯 하늘을 향해 뻗어있다. 주로 능이나 궁 앞에 있는 홍살문은 그 구체적인 기원이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스러운 공간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통용된다.

홍살문 뒤로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위엄 있게 서있는데 수령이 400년도 넘었다고 한다.

덕천서원은 남명 조식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를 따르던 후학들이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것을 전란 후 복원했지만 다시 흥선대원군 때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는 수난을 당한다.

현재의 서원은 1920년대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홍살문 뒤의 은행나무는 덕천서원의 이 모든 역사적인 부침을 말없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홍살문을 지나 덕천서원의 정문인 시정문에 들어서면 서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정면으로 서원의 본당인 경의당(敬義堂)이 서있고, 경의당의 오른쪽엔 진덕재(進德齋)가, 왼쪽엔 수업재(修業齋)가 있다.

‘경의당’이라는 이름은 남명 조식 선생이 중시했던 ‘경(敬)과 의(義)’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남명 선생의 제자들은 경의당에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경의당 옆의 ‘진덕재’와 ‘수업재’는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했던 일종의 기숙사 역할을 했던 곳이다. 경의당 뒤편 왼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전사청이라 하는데 제기와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경의당’을 지나 뒤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이 보인다. 서원의 안에 있는 세 개의 문이라고 해서 내삼문(內三門)이라고 부르는 이 구역 안에 조식 선생의 위패가 모셔지고 있는 송덕사(崇德祠)로 가는 문이다.

가운데의 큰 문은 남명 선생의 혼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제사가 있을 때만 출입이 가능해서 평상시엔 양 옆의 작은 문으로만 출입을 한다.

천천히 덕천서원의 경내를 거닐며 그 옛날 이곳에서 학문을 닦던 남명 선생의 제자들을 상상해본다.

남명 사상의 어떤 면이 수많은 후학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을까.

어디선가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남명 조식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3. 세심정(洗心亭)

덕천강을 바라보며 서있는 작은 정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의 ‘세심정’이라는 이름과 썩 잘 어울린다. 정자에 올라 덕천강가를 바라본다. 옛날 덕천서원에서 공부하던 남명선생의 제자들도 이렇게 덕천강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도시에서 찌들은 마음을 덕천강 맑은 물에 씻어본다.

세심정은 임진왜란과 서원철폐령 등을 겪으며 덕천서원과 함께 소실과 복원을 반복하다 1920년대에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서원 문밖 시냇가에 2칸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으니, 임진왜란 이전엔 현재의 규모보다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명의 제자인 수우당 최영경 선생이 덕천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정자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휴식공간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휴식이 의미하는 것이 ‘세심’, 즉 마음을 씻는다는 것이라면,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각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평상시에도 ‘성성자’라는 방울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방울이 울리는 소리에 늘 깨어있고자 했던 남명 조식 선생이었기에, 그의 뜻을 이어받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 또한 이곳 세심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세심정 옆에 새겨져있는 남명 선생의 시는 이 같은 ‘세심’의 의미가 다소 섬뜩하게 다가온다.

은 몸에 쌓인 사십년 동안의 허물을 (全身四十年前累)

천섬 맑은 물에 모두 씻어버리네 (千斛清淵洗盡休)

만약 오장에 티끌이 생긴다면 (塵土倘能生五內)

지금 바로 배를 갈라 저 물에 띄워 보내리 (直今剖腹付歸流)

둘레길을 걷는 큰 의미 중 하나도 이런 게 아닐까?

일상에서 쌓였던 많은 찌꺼기와 허물들을 지리산 맑은 자연 속에서 씻어내는 것.

그리고 길 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세심’의 의미를 새기며 발걸음을 옮긴다.

4. 원리

덕천서원 바로 옆에 덕산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흥미롭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곳 일대에 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다.

마을 어르신에 의하면, 지금은 원리교 너머에 있는 면사무소가 일제 강점기엔 이 덕산 고등학교 앞에 있었다고 한다.

도시엔 살면 ‘면사무소’라는 것이 그리 피부로 와 닿는 단어가 아니지만 시골마을에서 면사무소가 있다는 건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는 의미이다.

예전엔 이곳 원리가 덕산일대의 정치적 중심지였다고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말씀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면사무소와 학교, 게다가 조선시대부터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던 덕천서원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원리라는 이름도 덕천서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전엔 원동이라고도, 원촌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원리교가 생기기 이전엔 덕천강을 나무다리로 건너다녔다고 하는데, 그 옛날 덕산장에 가기 위해 커다란 짐을 짊어진 채 위태위태하게 나무다리를 건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 거린다.

5. 덕천강과 덕산

시내를 따라 길이 펼쳐지고, 시내 너머로는 넓은 들녘이 한 눈에 보인다. 비록 딱딱한 아스팔트길이지만 물 따라 걷는 이 길이 상쾌하다. 저 멀리 아슴푸레하게 천왕봉이 보인다.

지도상엔 옆에 흐르는 시냇물을 덕천강이라 표기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살천’이라고 부른다. 물길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으로 살천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바꾸어 ‘시천’이라고도 하며 이 일대를 지칭하는 시천면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살천은 중산리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인데, 이 물길은 시천면 소재지 앞에서 대원사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인 삼장천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물줄기가 합쳐져 남강까지 흘러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부터 그 하류를 ‘덕천’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더불어 덕천 주변의 이 일대를 옛날부터 ‘덕산(德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행정지명을 뜻하지는 않는다. 굳이 현재의 행정지명으로만 따지자면 시천면과 삼장면 일대를 통칭하여 덕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덕산장터를 비롯해 이 일대의 간판이나 지명에 덕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덕천과 덕산, 덕스러운 냇가와 덕스러운 산. 그런데 어떤 커다란 덕이 이 땅에 서려 있길래 이 일대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덕산과 덕천에 관한 정확한 기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추측해본다. 천왕봉이 한 눈에 보이는, 천왕봉과 가까운 땅이기에 천왕봉의 큰 덕을 입은 땅이라고. 조선 중기 ‘덕천서원’에서 공부하였던 ‘하진’이라는 분이 쓴 시에도 이 같은 의미가 나타나있다.

*덕산 산 아래 덕천촌이라는 마을 있는데 / 들어가는 이들 모두 입덕문을 경유하네
속인들 덕자로 이름 지은 뜻 모르리니, / 부질없이 산수를 가져다 사람들에게 말하네.*

속세의 사람들은 덕자로 이름 지은 뜻을 모를 거라 했지만, 지리산과 둘레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렵פות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덕을 마음 속 깊이 담고서 길을 계속 걷는다.

6. 금환락지와 감 경매장

덕천강을 따라 넓은 논이 펼쳐진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천평(川坪)들이라고도, 금환락지(金環洛池)라고도 부른다.

냇가 옆에 자리 잡은 넓은 들녘이라는 뜻에서 천평들. 그리고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며 금가락지를 빠뜨린 곳이라 하여 '금환락지'라고도 하니, 자연적으로는 풍요롭고, 풍수 지리적으로는 명당인 땅이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옛날부터 지리산 자락 안에 숨어있는 풍요로운 땅이었던 이곳은 현재까지도 그 넉넉함을 유지하고 있다. 길옆에 커다랗게 서있는 꽃감 경매장이 이를 말해주는 듯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덕산꽃감이 이 일대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덕산꽃감이 명품 꽃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원료가 되는 최상의 감과 최적의 지리적 기후조건이라는 절묘한 조화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덕산 꽃감은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종시와 단성시를 원료 감으로 사용한다.

특히 조선시대 고종 임금이 그 맛을 보고 경탄했다고 하여 고종시라 불리는 이 감은 씨가 적고 육질이 뛰어나면서 당도까지 높아 단성시보다 더 많이 재배된다. 이러한 최상의 원료 감은 건조과정에서 지리산에서 넘어오는 고온 건조한 뉘새바람과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찬 기운을 만나, 밤에는 열고 낮에는 녹는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천연당도가 높아지고 육질이 차지며 감미롭고 부드러운 꽃감이 된다. 열풍기를 이용한 인공건조가 아닌 지리산의 기상 조건 그대로 이용하는 자연건조의 과정을 겪기에 그 맛과 영양이 더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덕산 꽃감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정성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덕산 꽃감이 명품꽃감으로 알려진 데에는 최상의 원료감과 천혜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걸쳐 터득한 장인들의 비법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산물이다.

7. 송하마을과 해평들

2차선의 좁은 아스팔트길을 따라 마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집집마다 있는 감나무의 가지들이 담벼락을 넘어 둘레길을 걷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담벼락에 그려진 감과 관련된 벽화들이 소박한 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있는 송하마을. 마을 앞에 모여 계시던 아주머니들께 마을에 관해 이것 저것 여쭙니 대뜸 마을 자랑부터 늘어놓으신다.

구수한 사투리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입모아 하시는 말씀이

‘이 일대를 해평들이라고 해. 올 때는 울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웃고나가는 곳이지’라는 얘기를 해주신다

해평들. 추측컨대, 덕천강 하류 쪽에서 이 마을로 들어올 때는 좁은 입구와 협곡을 보며 실망하며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며 나간다는 말씀인 듯하다.

연이어 손주자랑이 한창 이시다.

이번에 둘째 손주도 대학을 갔다고 하시면서 이 일대에선 여기가 제일로 대학생들이 많이 ‘난다’고 연신 강조하신다.

대학생이 ‘난다’는 표현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마을회관에 앉아 도시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을 얘기들을 열심히도 해주시는 할머니들의 수다는 끝날 줄을 모른다

환하게 웃으시며 동네 자랑을 이어가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너무나 여유로우면서도 풍요로워 보인다. 어쩌면 진정한 풍요로움은 넉넉함이 아닌 소박함에 있는 것은 아닐까.

만족보다는 결핍에 더 민감한 도시적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삶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8. 중태마을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있다. 중태마을의 당산이기도 한 이 느티나무는 그 풍성한 줄기를 펼치며 넓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마치 돌레길을 걷는 여행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손짓을 하는 듯 포근한 쉼터를 제공한다.

사실 중태마을의 당산은 이 느티나무가 아니었다고 한다. 원래는 수백 년도 넘는 고목이 중태마을의 당산으로 이곳에 서 있었으나, 한국전쟁 직후 나무의 썩은 부위에 불이 붙으면서 밤새 타버려 말라 죽었다. 결국 인근에 있던 이 느티나무를 여기로 옮겨 심어 당산나무를 대신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대보름 새벽에 이곳 당산나무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렸지만,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당산제의 전통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 곳은 ‘동학농민전쟁’의 마지막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한양으로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은 충남의 우금치에서 일본군이 합세한 관군과 맞서게 된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하면서 사실상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게 된다.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여 남쪽으로 퇴각했던 농민군은 덕산 일대까지 쫓겨 오게 되는데, 이를 쫓던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전투를 벌인 곳 중 하나가 이곳 중태마을이다.

하지만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수 백 여명의 마지막 동학농민군은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은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워 감히 농민군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다가 관군의 눈을 피해 몰래 농민군의 시체들을 인근의 골짜기에 가매장하여 가족들이 찾아 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농민군들이 가매장되었던 그 골짜기는 아직도 ‘가장골’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장골’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역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리산 돌레길에서 만나는 마을들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해도 저마다의 굴곡진 역사가 아로 새겨져있다. 그 굴곡진 역사 속에는 때로 아물지 못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마음을 가슴 한 켠에 간직한 채 발걸음을 다시 옮겨본다.

9. 중태 마을 안내소

둘레길 중태 안내소. 이곳에선 '공정여행'을 다짐하는 실명확인 서명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둘레길을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하고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된 '공정여행'은 이 곳 둘레길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여행객 자신이 여행계획을 짜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기, 지역민들의 터전을 훼손하지 않기, 일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이 '공정여행'의 시작인 것이다.

즉 '지역과 함께 나누는 여행,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이 되어야 이 길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산나무 쉼터에 앉아 마을을 바라본다. 지금은 감나무 밭이 곳곳에 많지만, 예전엔 마을 전체가 거의 논이었다고 한다.

"(여기 그러면 옛날에 다 논농사였나요?) 싹 논농사지. 저 골짜기까지. 여기 논이 총 몇 마지기냐면, 그때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이었는데, (200평 한 마지기로 보고) 오백예순여섯 마지기 반이라. (아, 오백육십 마지기 정도) "

쉼터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은 예전 중태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계산해보니 11만평도 넘는 논밭이 마을 일대에 있었다는 말씀이다. 이 좁은 골짜기에서 그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는 게 쉽게 실감나지 않는다. 문득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구한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논밭을 만들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경이'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민초들의 삶은 슬프면서도 강하고 질기다.

하지만 도시로 떠난 많은 사람들처럼 그 넓은 논농사의 풍경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대신 요즘은 꽃감이 이곳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중태리의 꽃감은 60년대부터 조금씩 상품화되기 시작했고 80년대부터는 벼 수확을 앞지르며 점점 대량 생산되고 있다.

꽃감의 원료 감이 되는 고종시와 단성시의 수확이 10월 말부터 시작되고 12월부터는 꽃감이 나온다고 하니, 꽃감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겨울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10. 유점 가는 길

중태마을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면 늦점골, 불당골, 유점마을 등의 작은 마을들이 있다. 유점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마을 어르신은 이 작은 마을들을 이렇게 설명해주셨다.

“(골짜기 이름도 많던데요.) 늦점골, 불당골, 유점골. (어르신은 어느 골짜기에) 유점에 있었지. 본 부락에 내려온지 15년 됐어. 거기서 나고 거기서 컸는데. (늦점골은 옛날에 그릇을 만들고 했나요?) 늦점이라고 노점기가 낫지. (불당골엔 불당이 있었고) 불당이 있었고. 절이 있었고. (유점은요?) 유점은 점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유점이고. 늦점골이고. 불당골이고. (유기 그릇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여기 그러면 그릇도 많이 굽고 그랬겠네요?) 옛날에...”

‘점’은 그릇을 만드는 곳을 말하는데, 그래서 늦점은 늦그릇을, 유점은 유기그릇을 만드는 곳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작은 마을에 어울리는 소박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골짜기 사이사이마다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엔 그 옛날 산적들의 소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러니까 중태마을에서 유점마을로 올라가는 길 어딘가에 천 여평 규모의 둥굴고 오목한 남서향의 자연 요새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곳에 집을 지으면 “자손들이 도둑이나 산적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 옛날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이 깊은 골짜기에까지 들어와 살아야 했던 당시의 산적이나 도둑들을 언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도 가난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 깊은 골짜기에서의 삶을 택한 것 일테니 말이다

11. 중태재 이야기

산길의 오르막을 걸어올라 고갯마루에 이른다.

생각보다 긴 오르막에 숨이 차온다. 잠시 숨을 돌리면 돌레길 푼말을 보니 ‘갈치재’라고 쓰여 있다

이 고개는 하동과 산청에서 각각 다른 이름을 갖는다. 하동의 위태 사람들에게겐 ‘위태재’라는 이름으로, 산청의 중태 사람들에게겐 ‘중태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를 통칭해 ‘갈치재’라고 부르는 셈이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산청과 하동 땅 모두 이 고개에 접해있으니, 옛날부터 산청과 하동 사람 모두 이 재를 넘나들며 살아왔을 것이다.

옛날 하동의 위태 사람들은 덕산장에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

그리고 이곳 중태 사람들도 행정구역상 하동에 속하던 시절, 배급을 받기 위해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만난 어르신은 고생스러웠던 그때를 떠올리신다.

배급을 주로 하동군에서 했기 때문에 소금이나 비료같은 무거운 물건들도 짊어지고 이 ‘중태재’를 넘었다고 하신다.

온전히 자신들의 두 다리만으로 수없이 재를 넘어야 했던 시절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중태재’를 오르면서 힘들게 내쉬었던 나의 거친 숨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이 고개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빨치산의 부대원들이 마을로 내려올 때 이 고개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종종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빨치산과 국군 사이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

한때 희생자들에 대한 인골 수습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 일대의 지형이 많이 변해 버려서 인골들에 대한 수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아픔들이 치유되길 바라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예를 올려본다.